

월드컵 개막 20일 앞두고 쓰러진 손흥민... 벤투호도 비상

축구협회 “의무팀서 손흥민 부상 정도 예의 주시”
주장이자 에이스 이탈시, 축구대표팀에 치명타
손흥민, 경기 후 라커룸서 단체 사진 후 함께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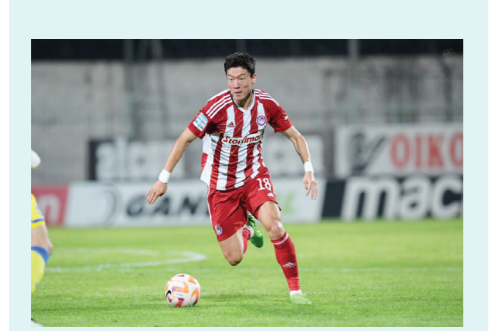
2022 카타르월드컵 개막을 약 3주 앞두고 손흥민(30·토트넘)이 쓰러지면서 벤투호에도 비상이 걸렸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마르세유와의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최종 6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지만, 전반 29분 만에 교체됐다. 그는 전반 23분경 후반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경합하다가 마르세유의 찬셀 음베퍼와 강하게 충돌했다.
음베퍼의 어깨가 손흥민의 안면을 강타하면서 그대로 그라운드 쓰러졌고, 눈과 코가 심하게 부어올랐다. 또 코에선 출혈까지 발생했다. 결국 손흥민은 의료진의 부축을 받고 전반 29분 이브 비수마와 교체됐다.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골절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퇴장 징계로 벤치에 앉지 못한 안토니오 콘테 감독 대신 경기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코치는 “내일 손흥민의 상태를 다시 봐야하지만, 라커룸에서 좀 더 나아졌고 동료들과 함께 축하했다”고 말했다.
다만 뇌진탕 증세를 보이던 잉글랜드축구협

회(FA) 규정에 따라 최소 6일간 경기에 나설 수 없어 7일 예정된 리버풀과 홈 경기엔 결장할 가능성이 있다.
큰 부상은 피했지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달 개막하는 2022 카타르월드컵 개막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벤투호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 전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울림피아코스)가 부진에 빠진 가운데 원톱과 측면 모두 가능한 손흥민의 부상은 치명타다.
벤투호는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경쟁한다.
부상을 피해도 컨디션 저하로 올 우려가 있다.
지난 시즌 총 23골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3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다.
UEFA 챔피언스리그(2골)를 포함해도 공식전 5골이 전부다.
마르세유전에서도 부상으로 29분 만에 교체



토트넘 홉스퍼의 손흥민이 1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2022-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D조 최종 6차전 마르세유(프랑스)와의 경기 전반 27분경 부상해 응급 처치를 받고 있다. 토트넘은 마르세유를 2-1로 꺾고 챔스리그 16강에 진출했다.

되며, 모든 대회에서 6경기째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대표팀 의무팀에서 고 전했다. 손흥민의 부상 정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뉴시스



황의조, 울림피아코스 '0골' 원소속팀 노팅엄 복귀하나 "카타르월드컵 전 임대 끝날 것"

한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0·울림피아코스)가 원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할 거란 현지 보도가 나왔다.
그리스 매체 스포르타임은 1일(한국시간) “울림피아코스가 황의조를 노팅엄으로 돌려보내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황의조는 황의조와 달리 그라운드에서 평범함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10 경기에서 도움 1개만 올린 게 모든 걸 보여준다. 카타르월드컵 개막 전에 임대도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8월 지롱댕 보르도(프랑스)에서 노팅엄으로 이적한 황의조는 구단주가 같은 울림피아코스로 곧바로 임대됐다.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정규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등 공식전 10경기에 출전했으나, 득점 없이 도움 1개만 기록 중이다.
최근엔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2군으로 내려갔다는 소문까지 들렸다.
실제로 황의조는 지난달 22일 파넬리코와의 그리스 수페르리가 엘라다(1부리그) 9라운드부터 2경기 연속 출전 명단에 제외됐다.
지난달 28일 프라이부르크(독일)와의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만 교체로 뛰었다.
스포츠타임은 노팅엄 복귀가 유력한 황의조가 3일 예정된 낭트(프랑스)와의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봤다.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울림피아코스는 낭트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는 “황의조가 낭트전을 치르고 노팅엄에 합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의조의 원소속팀인 노팅엄은 2022-2023시즌 현재 EPL에서 20개 팀 중 최하위인 20위(승점 9·2승3무8패)에 처해 있다.

김하성 한국인 최초 골드글러브 수상 실패...스완슨 수상

아레나도, 10년연속 수상
댄스비 스완슨(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이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제치고 황금장갑을 품었다.
ESPN 등은 2일(한국시간) 2022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 수상자를 발표했다.
김하성이 최종 후보 3인에 들었던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문 수상자에는 스완슨의 이름이 불렸다.
1957년 제정된 골드글러브는 수비만 평가해 각 포지션별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샌디에이고 유격수를 책임진 김하성은 역대 한국 선수 최초로 골드글러브 후보에 올랐지만, 사상 첫 수상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2016년 빅리그에 데뷔한 스완슨은 올해 첫 올스타 선정에 이어 골드글러브까지 품으면서 잊을 수 없는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다.
스완슨을 포함해 올해는 총 14명의 선수가 처음으로 골드글러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의 팀 동료인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아메리칸리그 1루수 부문에서 첫 황금장갑을 따냈다. 국내 팬들에게는 KIA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프레스터 터커의 동생으로도 친숙한 카일 터커(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아메리칸리그 유격수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놀란 아레나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올해도 어김없이 내셔널리그 3루수 황금장갑을 가져갔다. 무려 10년 연속 수상이다. 아레나도는 데뷔 첫 해였던 2013년부터 매년 골드글러브를 차지하고 있다.
역대 3루수 중 이 부문 최고 기록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브룩스 로빈슨의 16년 연속(1960-1975년) 수상이다.
올해 골드글러브에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들을 평가한 유틸리티 부문이 신설됐다.
브랜든 도너번(세인트루이스), D.J. 르메이휴(LA 양키스)가 각각 내셔널리그, 아메리칸리그 유틸리티 부문 첫 수상자 영광을 안았다. 뉴시스

넥센타이어, 스노보드팀 창단... '배추보이' 이상호 영입



넥센타이어가 알파인 스노보드팀인 '윈가드 스노보드'를 창단하며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에 나섰다. 1일 서울 강서구 마곡 넥센중앙연구소 더 넥센유니버시티에서 열린 창단식에는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회장, 이현중 사장, 넥센타이어 '윈가드 스노보드'팀 현병준 코치와 선수들이 참석했다. 넥센타이어 윈가드 스노보드팀은 이상호, 홍승영, 권용휘 등 우수한 선수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상호는 지난 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부 종합 순위에서 랭킹 포인트 604를 기록, 한국인 최초로 시즌 종합우승을 거둔 바 있다. 뉴시스

넥센타이어는 선수들의 유니폼, 보드 및 헬멧 등에 브랜드 로고를 노출하고 스노보드를 활용한 아카데미 운영 및 일반인 대상 대회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동계 스포츠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회장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국내 스노보드 선수들이 2026년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나아가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스키협회 박동기 회장은 “넥센타이어의 스노보드 종목 지원이 본보기가 돼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원쪽부터 윈가드 스노보드팀 권용휘 선수, 현병준 코치,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회장, 윈가드 스노보드팀 이상호, 홍승영 선수

배용준, 2022시즌 KPGA 코리아투어 신인상 2개 대회 남은 가운데 장희만 '골프존-도레이 오픈' 불참으로 확정

배용준(22)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신인상을 받았다.
KPGA는 2일 배용준이 신인상 포인트 부문에서 2490.47점으로 2022시즌 가스텔마작(명출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코리아투어는 3일부터 열리는 골프존-도레이 오픈과 10일 개막하는 LG 시그니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2개 대회만을 남겨뒀다.
그러나 신인상 포인트 2위(1242.88점)인 장희만(20)이 골프존-도레이 오픈에 불참하면서

배용준의 수상이 조기 확정됐다.
장희만이 최종전에서 우승해도 900점을 받는데 그쳐, 배용준을 앞설 수 없다.
올 시즌 16개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배용준은 아너스K·솔라CC 한장상 인비테이셔널 우승을 포함해 톱10 4회 진입 등 총 13개 대회서 톱 통과했다.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는 4위(4,250.46점), 제네시스 상금순위 11위(3억3636만원)에 위치해 데뷔 첫 해 투어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습을 보여줬다.
배용준은 “투어에 입성한 뒤 처음으로 받게 된 시즌 타이틀인 만큼 기쁘다. 또한 생애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더욱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용준은 “투어에 입성한 뒤 처음으로 받게 된 시즌 타이틀인 만큼 기쁘다. 또한 생애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더욱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월드컵 상대 누네스에 패한 김민재... 팀 내 최저 평점

2022 카타르월드컵 상대인 우루과이의 신에 골잡이 다윈 누네스에 실점한 김민재(26·나폴리)가 저조한 평점을 받았다.
나폴리는 2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치러진 리버풀과의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최종 6차전 원정 경기에서 0-2로 패배했다.
리버풀을 상대로 두 골을 내준 김민재는 팀 내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 유럽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경기 후 김민재에게 평점 6점을 부여했다. 이날 나폴리의 선발 출전 선수 중 가장 낮은 점수다.

2022 카타르월드컵 상대인 우루과이의 신에 골잡이 다윈 누네스에 실점한 김민재(26·나폴리)가 저조한 평점을 받았다.